



## 금속 노사, 노동자 작업중지권 확대·강화한다

### 5일 산별 중앙교섭 의견접근 ... 내년 산업 최저임금 1만420원

금속산업 노사가 작업중지권 대상 범위와 권한을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내년 금속산업 최저임금은 통상시급 1만 420원으로 정했다.

금속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는 5일 밤 9시 15분께 올 중앙교섭 의견 접근안을 끌어냈다. 지난 4월 11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약 4개월 동안 열 차례 교섭을 열었다.

금속 노사는 금속산별협약에 작업중지권 조항을 신설했다.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다고 불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시, 노동자들은 해당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재해 발생의 개연성이 있다면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누구나 작업중지권 사용이 가능하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작업 중지 권한을 인정하기도 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이 작업중지권을 노동자 개인에게만 부여하는 것과 달리 금속 노사는 작업중지권 권한을 넓혔다.

또 작업중지권 발동 이후 사용자는 조합 확인 절차를 거쳐야만 작업을 다시 시작한다. 사측이 작업중지권 행사를 이유로 노동자들에게 불이익 주는 것을 금지했다. 작업중지권의 실질적 보장이 필요하다는 데 금속 노사가 공감대를 이뤘고, 이

를 명문화했다.

기후 위기 대응책도 마련했다. 온실가스 배출량 파악·관리·저감 등 사용자 책임을 명시했다. 기후 위기 대응 과정에 노동조합 참여를 보장했다. 기후 위기 대응 정책을 집행할 시, 사용자는 조합과 반드시 협의해야 한다. 특히 탄소중립 환경 구축 등으로 노동조건이 바뀌거나 노동자 보호가 필요한 경우, 사측은 노동조합 요구에 따라 대책 마련을 위한 협의 과정을 열어야 한다.

금속노사는 2026년 금속산업 최저임금을 통상시급 10,420원과 월 통상임금 2,354,920원 중 높은 금액으로 적용한다. 올해 통상시급 1만 150원에서 270원 인상하기로 했다. 내년 법정 최저임금(1만 320원)보다 100원 높다. 기존 금속산별협약에 따라 비정규직과 이주노동자도 금속산업 최저임금을 적용받는다.

금속노조는 다음 달 16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금속 노사 의견접근안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조합원 찬반투표 일정을 확정한다. 이날 의견 접근으로 올해 산별중앙교섭을 일단락지은 금속노조는 지부, 지회 등 각 교섭 단위 임단투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달 13일과 20일 지부 집단 교섭 승리를 위한 집중 투쟁, 27일 미타결 사업장 집중 투쟁을 준비 중이다.